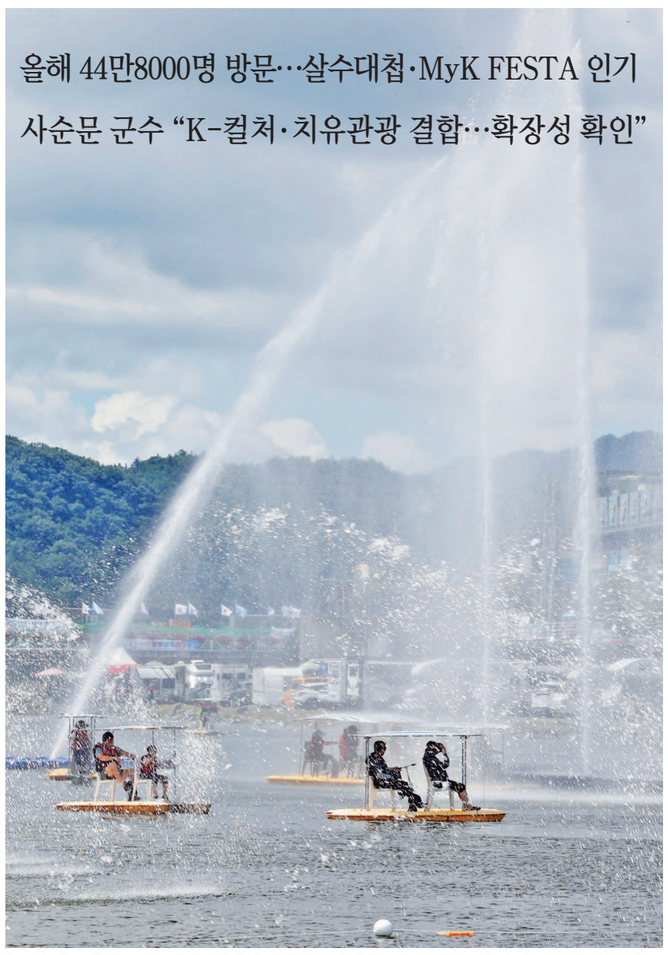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한다

올해 44만8000명 방문…살수대첩·MyK FESTA 인기
사순문 군수 “K-컬처·치유관광 결합…확장성 확인”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물축제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Zip 일원에서 ‘치유가 물~씬! 여름이 물~씬! 씬나는 장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9일간 열린 물축제에는 44만8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축제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물축제는 물놀이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치유와 문화, K-컬처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장흥읍 시가지를 가득 메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며 화려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국가별 전통문화 퍼포먼스와 물을 활용한 퍼레이드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으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나타냈다.

축제 기간 탐진강에서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우든보트와 바나나보트,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이 연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시원한 탐진강을 무대로 펼쳐진 다채로운 체험은 무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MyK FESTA’와의 연계였다.

K-POP 콘서트와 장흥 Rock 페스티벌, Water Beat 공연은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하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빠삐용Zip은 올해 축제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K-드라마 콘텐츠와 AR 미션투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뒀다.

별빛달빛 청년존, 장흥 물빛야장 등 낮과 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 대신 정남진 장흥토요시장과 지역 음식점을 연계해 장흥 한우삼합과 된장물회 등 지역 대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뒀다.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군은 탐진강 물놀이장(수영장)을 1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축제 이후에도 장흥을 찾는 휴가객들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군민과 관광객,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축제였다”며 “물축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를 넘어 K-컬처와 치유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올해도 축제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수익금 가운데 50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물축제에는 44만8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축제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사진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청

광양,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 나선다

성과 중심 시정 전환…“실행 속도·성과로 시민에 평가”

광양시는 연말까지 부족한 650억원의 재정 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최근 가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재원조달 가능성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시민보고회를 통해 재정 부족 전망액 650억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연말까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 중복 사업 통합·조정,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전액 시비 사업과 현금성 복지사업 재검토, 국·특별시비 사업 등급제, AI 기반 예산심사 도입 등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재정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시정 기준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안전과 필수 복지, 미래 성장 기반에 필요한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정 운영계획과 공약 실천계획도 재원과 일정, 책임부서를 구체화 해 단계별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핵심 정책별 부서 전담TF를 구성해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신속히 성과를 내게 하고 국가사업과 대규모 투자 등 장기과제는 단계별 목표와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현 시장은 “출범 첫 한 달은 위기를 숨기지 않고 변화의 방향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행의 속도와 성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시민 안전과 민생, 미래 산업에 필요한 투자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용방면 용방로 312에 이전 신축한 구례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청

구례,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정 공급

연 440t 생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준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용방면 용방로 312에 이전 신축한 구례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전 신축한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총 사업비 33억9000만원을 투입해 498㎡ 규모로 조성됐으며, 멸균배양시스템과 품질검사장비, 자동분주시스템 등 최신 설비를 갖춰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멸균배양시스템 도입으로 배양 과정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균수 검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균일하고 신뢰성 높은 유용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분주시스템을 구축해 농업인이 원하는 미생물을 보다 쉽고 편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배양센터에서는 EM균,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 총 6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약 440t 규모로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새롭게 문을 연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여수항에 하반기 첫 국제크루즈 입항

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객 편의 지원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최근 하반기 첫 국제크루즈선 여수항 입항에 맞춰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통역 인력 운영 등 관광객 편의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여수항을 찾은 13만6000t급 중국 선사의 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호’는 승객 4450명과 승무원 1000명 등 총 5450여명을 태우고 입항했다.

시는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자유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크루즈터미널과 오동도, 이순신광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6대를 운행하고, 터미널과 주요 관광지에 통역·안내 도우미 10명을 배치해 관광 안내와 탑승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관광객 밀집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동도와 이순신광장에는 모범운전자 6명을 배치했으며, 터미널 내 임시 택시 승강장에는 통역 가능 인력 2명을 운영해 원활한 이동을 도왔다.

관광안내소에는 문화관광해설사 3명, 검역·출입국·세관(CIQ) 구역에는 통역·질서유지 인력 5명을 투입해 관광객들의 입·출국 수속과 관광 안내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크루즈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수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 안내 등 맞춤형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최근 여수항에 2026년 하반기 첫 국제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입항했다.

곡성, 전통시장 노점카드 결제 지원

전국 최초…31일까지 사용 독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촉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해 읍·면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접수와 이의신청 처리, 지급, 소비 촉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복지부서와 정보를 연계해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해 추가 지급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노점 카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노점에서도 선불카드와 카드형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사용기한인 31일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지원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소비 촉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

“순천 선암사서 특별한 인연 만나요”

순천시 ‘시절인연’ 참가자 모집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 4회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를 배경으로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로테이션 소개팅 프로그램 ‘시절인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유산 선암사가 지닌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국가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든 일이 가장 적절한 때와 인연을 만나 이뤄진다’는 불교용어인 ‘시절인연’의 의미를 담은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선암사의 공간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만남의 과정에 담아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9월 5·12·19·20일 총 4회 운영된다.

회차별 남녀 각 6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로테이션 방식으로, 참가자들은 먼저 선암사에서 ‘시절인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만세루에서 로테이션 소개팅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매칭된 참가자와 함께 ‘데이팅맵’을 따라 선암사를 걸으며 국가유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취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까지 각 회차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네이버에 ‘선암사 시절인연’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10-9882-2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